

▶ **주생활****북촌한옥지구 도시한옥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개방형 한옥을 중심으로-

김도연*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강사)

오혜경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최근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북촌가꾸기' 한옥 보존정책도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이며, 도시한옥의 원형보전에 얽매이지 않고, 개보수를 통한 한옥보전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는 북촌지역에 개보수가 이루어진 도시한옥의 사례를 분석하여 전통적 표현방법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현장관찰방법으로 평면과 사진에 의한 조사와 거주자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북촌한옥보존지구 개방형 한옥을 대상으로 2006년 9월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한옥은 향과의 관계속에서 배치가 결정된다. 조사결과 모든 사례에서 대청의 향은 남향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당의 향과 출입구의 위치는 동쪽이나 남쪽이었다. 이는 필지에 따라 출입구의 위치가 결정되고 대청의 향에 따라 평면유형 및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도시한옥에서 나타난 외부공간 구성방법을 보면 한옥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 반사적 공간을 도입하거나 입구를 강화하여 영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타났다. 도시한옥은 대지가 작고 공간이 협소하여 대문간 중간에 대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반사적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내부공간 구성방법은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 매개공간, 공간의 가변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창과 문을 통해 내·외부공간은 상호관입하게 되고 마당을 통해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공간이 매개공간이 되어 연속성과 깊이감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창호를 이용하여 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가능해짐으로써 가변성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넷째, 구조적 요소에 의한 표현특성은 지붕과 처마, 창호등 전통적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처마는 겹처마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고 공간사용의 현대화정도에 따라 기단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 내부구성요소에 의한 표현특성은 현대적 재료에 전통적 문양이나 색채를 사용하여 전통을 보존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내부공간의 천장이나 벽면에 한옥 구조체를 노출하여 구조체 자체가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구조체 노출로 인한 전통적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식요소로는 마당에 석물과 수목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이면서 전통적 이미지 강조하고 있다. 문양은 외벽과 담장, 지붕에 주로 나타나지만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촌가꾸기' 사업으로 인하여 전통성 표현은 잘 유지되고 있으나 몇몇 사례에서는 휴먼스케일이 지켜지지 않고 형태적 이미지만 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형태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선기준제시와 세부적인 디자인 지침이 필요하다.